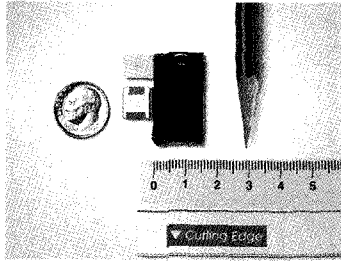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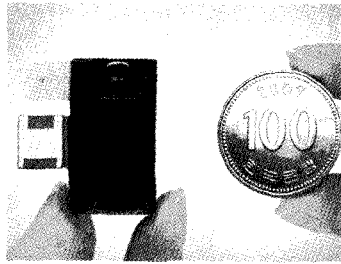


NEWS

삼성테크윈, 두께 8.5mm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개발 성공



삼성테크윈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8.5mm 두께의 CMOS 방식 광학 3배줌 카메라폰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모듈은 28mm(가로)×15.3mm(세로)×8.5mm(두께)의 초소형 모듈 내에 다양한 통합 솔루션을 적용,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 제품은 삼성테크윈이 지난 2006년 9월 개발에 성공한 500만 화소 광학 3배 줌 AF 카메라 모듈의 두께인 9mm 벽을 극복, 슬림형 휴대폰은 물론 PDA, PMP, MP3P, 내비게이션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크기도 대폭 줄었다. 삼성테크윈은 기존에 개발한 500만 화소 광학 3배 줌 카메라폰 모듈 대비 약 10% 작게 제작했다. 사진 인화 시에 영향을 주는 화소수도 디지털 카메라 수준인 8백만 화소까지 높였으며, 렌즈 밝기 F2.6을 실현했다.

이 밖에도 일부 디지털 카메라 및 DSLR 카메라에 적용 중인 광각 30mm촬영 기능 및 최대 1cm에서 촬영이 가능한 슈퍼 매크로 기능을 탑재했다.

김경수 이미징 사업부장은 "800만 화소 대

응 제품으로는 세계 최초"라며 "올 하반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테크윈은 국내 및 해외 디지털 카메라 업체는 물론 휴대폰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샘플 공급 및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전자, '뷰티 핑크' 출시



LG전자가 500만 화소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 폰인 '뷰티 폰(모델명: LG-SH210/KH2100/LH2100)'을 핑크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뷰티폰의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밝고 경쾌한 핑크 색상을 적용했다. 디자인과 색상에 민감한 20대 ~ 30대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

뷰티폰은 73만원을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출시 후 국내시장에서 13만대 이상 판매되어 고가 휴대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자동초점은 물론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수동초점 기능, 원터치 손떨림 방지 기능, 초당 120 프레임의 초고속 동영상 촬영 기능 등 전문가급 디지털카메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성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뷰티 핑크' 출시에 앞서 김태희가 출연하는 뷰티폰 2차 광고도 선보였다.

1차 광고가 뷰티폰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부각했다면, 이번 광고는 터치스크린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한 핸드라이팅 기능 등 3인치 대형 액정의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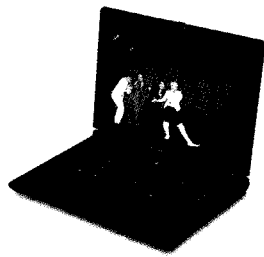
스크린폰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재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LG전자 조성하 MC한국사업부장(부사장)은 "젊은 세대에서 기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뷰티폰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20, 30대 여성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뷰티 핑크는 화려한 색감으로 트렌드와 패션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뷰티 핑크 출시에 맞춰 뷰티폰으로 촬영한 가수 민효린의 신곡 '터치 미(Touch Me)' 뮤직비디오를 오는 14일 싸이언 홈페이지(cyon.co.kr)를 통해 공개한다.

카메라폰 뮤직비디오를 통해 뷰티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쉽고 감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삼보컴, 블루블랙 노트북 '에버라텍 8400' 출시



삼보컴퓨터(대표 김영민)는 블루블랙 색상을 적용한 노트북PC '에버라텍 8400'을 출시하고 성수기 노트북PC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고풍택 블루블랙 색상을 적용했으며 노트북PC 전면부를 곡선으로 설계해 입체감을 살렸다.

39.1cm(15.4인치) LCD를 채택했으며 AMD 튜리온 64×2(2.2GHz) CPU, 160GB HDD, 2GB 메모리, DVD 슈퍼멀티 드라이브를 내장했다.

삼보컴퓨터는 24시간 콜센터 운영, 노트북

PC 전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노트북PC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삼보컴퓨터 국내사업총괄 김종서 사장은 "새 학기를 맞아 강력한 성능과 우수한 디자인을 함께 갖춘 노트북이 각광 받고 있다"며 "개성 있는 외관을 갖췄으면서도 품격을 겸비한 디자인으로 성수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DVD 캠코더 출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플래시메모리와 DVD를 함께 저장매체로 사용해 편의성을 높인 하이브리드 DVD 캠코더 'VM-DX10'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저장장치로 4GB 플래시메모리를 채택해 전원을 켜 후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촬영 대기시간을 3초로 줄였다. 또 DVD디스크 드라이브와 SD카드 슬롯도 함께 갖춰 촬영한 동영상은 DVD디스크나 외장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2.7인치 터치스크린 LCD화면을 채택했다.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터치스크린의 잘라내기, 붙여넣기 메뉴를 눌러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렌즈는 슈나이더 렌즈를 채택했으며 광학줌은 26배까지 가능하다. 가격은 59만9000원이다.

유니첼, 클릭으로 원하는 단어 검색하는 딕쏘 출시



유치원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육은 한국사회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요 때문에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전자사전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고 경쟁 또한 치열하다.

유니첼이 출시한 '딕쏘(DX-1000)'는 컴퓨터 USB에 연결, 클릭과 동시에 의미, 발음이 함께 제공되는 자동사전이다. 딕쏘(DX-1000)는 기존 종이사전이나 전자사전의 번거로운 인터페이스 대신 한번의 클릭으로 PC모니터에 사전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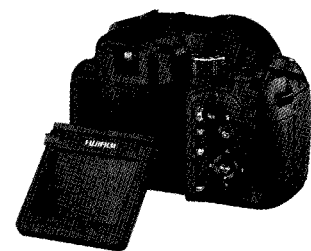
이 때문에 단어 검색을 하는 방법이 간편해졌고 검색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찾기까지 1초면 된다. 이처럼 간편한 검색이 가능해진 것은 유니첼이 보유한 '문자인식기술' 때문으로, 이 기술은 카메라로 단어를 촬영하고 그 영상 정보를 PC에 전달해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품은 일반 전자사전과 달리 이미 내장된 사전 콘텐츠 이외에도 사용자가 필요한 사전을 선정할 수 있다. 또 검색 가능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현재 검색 가능한 웹사전은 17개다. 특히 다양한 네티즌의 참여로 만든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물론 고유명사, 신조어, 약어처럼 일반 전자사전에서 검색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딕소를 실행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PC 사양은 윈도우XP 운영체제, 인텔 1.4GHz CPU, 256MB 메모리다. 하지만 영어공부를 하는데 있어 PC와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가격비교사이트 마이마진에 따르면 딕쏘 DX-1000은 종합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서 8만9000원에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

후지필름, 파인픽스 S100fs 출시



한국후지필름(대표 유창호)은 슬라이드 필름 색감재현 기능을 갖춘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파인픽스 S100fs'를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을 탑재해 사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슬라이드 필름 벨비아, 프로비아, 아스티아 등 색감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은 디지털 일인반사(DSLR) 카메라 S프로 시리즈에 탑재된 기능이다.

S100fs는 렌즈 시프트 방식 손떨림 보정기능과 ISO 10000 고감도를 지원해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떨림이 적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35mm환산 28mm~400mm 광학 14.3배 줌을 지원하고 1110만 화소 CCD를 채택했다. 25MB 내장메모리와 외장 xD/SD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80만원대.

마케팅팀 최성중 이사는 "신제품은 후지필름이 필름과 인화 사업을 통해 쌓은 수년간 노하우와, 최신 디지털 카메라의 고급 기술의 결합체"라며 "컴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 간의 기술 간극을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니, 보급형 DSLR '알파350' 제품 설명회



소니코리아(대표 윤여울)가 보급형 디지털 일인반사(DSLR)카메라 '알파350'를 선보이고 보급형 DSLR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회사는 알파350 '사양과 편의성'을 앞세워 이달 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하 캐논코리아)이 출시예정인 'EOS-450D'를 따라 잡겠다고 덧붙였다. EOS-450D는 지난

2006년 출시돼 베스트셀러를 유지했던 EOS-400D 후속작이다.

소니코리아는 6일 서울 명동 소니스타일 매장에서 알파350 제품 설명회를 진행했다. 알파350은 1400만화소 CCD를 장착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사 LCD를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LCD 화면을 보며 촬영할 수 있는 라이브뷰 기능도 지원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알파350 가격은 본체만 84만8000원으로 18~70mm 렌즈를 포함한 가격은 94만8000원이다.

알파350은 여성 및 DSLR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캐논코리아 EOS-450D와 판매대상이 같다. 이에 소니코리아는 개선된 라이브뷰 및 EOS-450D 1220만 화소보다 높은 1400만 화소라는 점을 부각시켜 450D를 누르겠다는 전략이다.

알파350에 채택된 라이브뷰 기능은 기존 DSLR과 달리 라이브뷰를 위한 이미지센서를 따로 사용해 미러업 방식 타사 제품에 비해 자동초점 및 촬영시간이 빠르다. 이외 ISO 3200 감도 지원 최대 2.5스텝까지 셔터스피드를 보정하는 수퍼 스테디샷 기능, 먼지 방지 코팅 등 촬영 편의성을 제공한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알파350을 EOS-450D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며 "DSLR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도 쓸 수 있게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여성, DSLR 초보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카이, 럭셔리 디자인 '블레이드 (BLADE)폰' 출시



스카이(www.isky.co.kr, 대표 朴炳燦)는 럭셔리 디자인의 HSDPA폰 '블레이드'(IM-

S320: SKT전용, IM-S320K: KTF전용)를 본격 출시한다.

날렵하고 고급스러운 '블레이드(Blade)' 형태의 디자인으로 슬라이드 상판과 하판이 135도 각도의 독특한 비례감으로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심플한 블레이드 형태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날렵하고 사프한 블레이드 형태의 반달 전면 방향키의 조화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느낌을 전달한다.

'로맨틱 웨이브폰(IM-S300)'에 이어 전면 방향키에 차별화된 감성디자인을 적용했다. 감성 디자인을 선도하는 스카이는 '로맨틱 웨이브폰' 전면 디자인에 적용했던 물결모양의 부드러운 연보라 라이팅에 이어 '블레이드폰'에서는 반달 형태의 전면 방향키에 그라데이션 라이팅 효과를 주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전면 디자인에 적용한 터치 버튼은 정상적으로 눌러면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전해져 정확한 입력과 함께 촉각 만족도를 높였다.

지금까지 휴대폰 디자인에 없던 블레이드 형태의 디자인은 스카이가 추구하는 간결함을 통해 세련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은 소유하고 싶은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명품이라는 철학을 담았다.

스카이 국내마케팅본부장 박창진 상무는 "스카이가 올해 출시하는 신제품은 기존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정말 갖고 싶은 실용적인 명품들이다"며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의 블레이드폰을 시작으로 소비자 마음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상통화와 WCDMA(광대역무선분할다중접속) 지역뿐 아니라 GSM(유형형 이동통신) 지역까지 글로벌 로밍을 지원한다. 2.1인치 광시야각 QVGA LCD를 채용하여 지상파 DMB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고, 지하철 노선도, 130만 화소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문서 뷰어, 멀티태스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색상은 소모기 블랙이며 가격은 50만 원대이다.